

## < 원점 타격법이 법조 사조직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이유 >

즉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법률영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

첫째) 판사검사들의 특권의식을 여지없이 무너트린다.

(실제로 그들 스스로가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)

둘째)

이들이 실재로 건국 70년동안 유지해온 특권 장갑방탄을 뚫어서 해체시킨다. 이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이유로 수십년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형성하여 왔으며 검사와 판사들은 서로서로 비리와 범죄를 숨겨주며 대통령도 뚫을 수 없는 탱크장갑보다 더 두꺼운 장갑방탄을 유지해 왔다.

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면책권은 흔히들 방탄국회라고 한다, 기껏해야 총알이나 막아내는 정도의. 그러나 이들의 탱크장갑은 웬만한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탱크장갑이다.

실재로 탱크장갑은 두께가 특수강무쇠로만 60센티가 넘는다  
이런 무시무시한 탱크장갑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안 하나면 멜트다운된다.

즉. 핵발전소 노심 녹아 내리듯이 녹아 내린다

셋째)

이 법안이 갖는 실제 가치보다. 존재가치가 천배 이상 더 크다.

즉 실제로 보통사람이 이들을 고용해서 법률영업을 해서. 이들의 특권을 녹여 내리는 것 보다,

이 법안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, 그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생각하기에 충분할 것이고

그러므로 자신들도 그저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속에서 전문 법률가로서 반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반역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

넷째)

이법안은 법조시장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만들며 실제적인  
시장균형자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도 안전  
하게 넘어가며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사법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

이 시장균형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들의 장막은  
도미노 게임과같이 법조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 
환경 국방외교 등 온나라에 도미노변화를 이룰 것이다

지난 수십년간 이 법조 사조직이 자신들의 탱크장갑만 구축한것이 아  
니라. 국가의 각 부문에 아류의 방어벽을 구축하여 먹이사슬의 구조를  
이루어 오며 부패의 공화국을 유지해온 것이다 이런 각 부문의 장벽들  
이 저절로

즉 이법안의 존재 이유만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뚫려져 나갈  
것이다.

실제로 이번 반란(병신정변 )에서 언론이 거짓말을 겁 없이 해대며 국  
민의 눈을 속이는 짓을 한 것도

법조 사조직이 뒷배를 봐준다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.

[맑고 싱그러운 세상, 사법변혁, 헌법수호대 ]그의노래 exe 곽춘규여호수아